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양순미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Effect of Variables Affecting the Self-Sufficiency Perceived by Multicultural Family in Rural Korea

Soon-Mi Yang

Division of rural environment & Resources,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Rural Environment Administration, Wanju, Jeonbuk, Republic of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identifying their relative importance and the factors affecting self-sufficiency in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The major findings that were drawn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the difference in the self-sufficiency level of their family perceived between husband and married immigrant women was not significant. But, in the level of self-sufficiency will, the level perceived by the husband was higher than it of the women significantly. Second,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age of the women($\beta=.31$) affected most significantly the self-sufficiency in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followed by the labour morale of the women($\beta=.25$), labour morale of the husband($\beta=.20$), academic background of the husband($\beta=.19$), academic background of the women($\beta=.12$), spouse support level of the women toward the husband($\beta=.12$). Third, as a result of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self-sufficiency will variables had more explanatory power on it than social-demographic and/or social support variables. In conclusion, based on results of this study, several plans improving self-sufficiency of the rural multicultural family were suggested. Findings of this study may be used as a basic material to establish the policy supporting self-sufficiency in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key words: word: rural, multicultural family, self-sufficiency, self-sufficiency will

1. 서 론

인간은 누구나 생애주기과정에서 남에게 예측되거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고 싶어하는 욕구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급속하게 다변화하는 후기산업화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자립 상태를 상실했을 때 그들은 쉽게 개인의 독립성, 주체성을 잃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삶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자립은 단지 경제적인 빈곤의 차원에서 인식되는 범주를 넘어서서 사

회심리 등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차원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한번 상실했던 자기 자신을 다시 찾아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한 제반의 활동을 내포할 수 있다. 그래서 자립은 어느 특정 계층이나 일부 취약계층에게만 국한되는 발달 과정이 아니며 누구든 생애주기를 통해 경험할 수 있고 과업을 달성해야만 하는 생애 주기적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다(양순미, 2013).

그런데 최근 다문화가족에 대한 자립논쟁이 우리사회에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면서 이들의 자립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안되

주요어: 자립, 농촌, 다문화가족, 역량, 의지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PJ0092342015)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전화: 063-238-2646 e-mail: ysm@korea.kr (565-851)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고 있다. 일부 선행연구(보건복지가족부, 2010; 양순미, 2008)에 의하면,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25.2%가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 수준을 가지며 상당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20~30대의 연령층에 해당되지만 저소득층으로서 생활기반 및 수준이 낮고 취약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의 생활수준에 대해 평균 중하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였다(양순미, 2008). 그들 자신이 인식한 이러한 경제적인 차원의 평가 뿐만 아니라 사회일각에서도 다문화가족을 사회취약계층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두드러지며 복지비용의 관점이나 복지수혜적 차원에서 이들을 주시하면서 이러한 화두가 가속화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경험적인 연구(Wong & Lou, 2010)에 의하면 사회수당제도 수혜자들은 수혜적 지위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효과로 인해 강한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이들의 자립을 어떤 차원에서 실현하느냐에 문제의 핵심이 주어졌는데, 농촌 다문화가족의 빈곤을 해결하거나 자립을 성취하려는 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타 사회수당의 적용만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일부 노동연계형 사회수당 정책의 주요시책인 자활지원사업이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최종희, 2010)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나 견해도 적지 않다. 실제 박영란과 강철희(1999)는 정부의 공식적 사회수당 지원을 받지 않는 여성 가구주가 더 높은 자립의지를 보인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지원이 오히려 복지의존적인 태도 형성 및 근로의욕 감소에 기여하고 제도적 지지가 자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자칫 잘못된 무분별한 복지수혜정책이 이들을 앞으로 40~50년 동안 복지수혜 그늘에서 의존지향적(依存指向的)인 생활을 하는 위치로 전락시킬 수 있으며, 더군다나 이들의 자라나는 2세대 아이들에게는 불필요한 수치심을 유발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관해 Kimenyi(1991)는 사회보장수혜의 가족사를 지닌 수급자는 공적복지 수혜상태에 더 오랫동안 안주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장기적인 복지의존은 복지수혜 그늘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Wong & Lou, 2010)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농촌의 결혼이민여성을 비롯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의존지향적(依存指向的)인 복지제도 보다 자립지향적(自立指向的)인 복지제도를 개발·적용함으로써 이들이 장기적으로 자립하며 인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야 할 것(양순미, 2006a)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해 이들을 위한 복지적 지원의 최선책은 무분별하고 단발성의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생활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자립의지를 북돋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의미에서 박용순(1997), 변규란·이정은·윤진아(2007), Halvorsen (1998)은 자립의지가 결핍되면 직업훈련과 근로기회를 제공받기도 생활의 변화를 스스로 추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상실해 자립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이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립의지를 고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립의지가 지니는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험적 자료들이 미약하며, 자립과 자립의지와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경험적인 연구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립을 정보화·경제·사회심리관계·주거영역으로 구성하여 접근하고, 이의 관련 변인을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자립의지 변인, 사회적지지 변인으로 구성하여 이들 변인들이 자립에 미치는 영향 및 상대적인 중요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농촌다문화 가족의 자립의지를 향상하고, 이의 지원 방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고찰

2.1. 자립의 구성요소 및 특성

2.1.1. 자립의 구성요소

<표 1>에 제시한 것처럼 여러 선행 연구들은 연구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자립을 몇 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타니구치아키히로 외(1999)는 자립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립의 구성요소를 신변 자립, 정신적 자립, 경제적 자립, 주거환경의 자립, 사회적 자립의 5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 분류는 국내의 다수의 후행 연구로 이어져 연구 목적과 대상에 맞게 적절히 변형되어 자립의 영역을 세분화시키고 확대시키는데 기초가 되었다. 이상록(2007)은 중증뇌성마비장애인의 자립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 가족, 사회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생태학적인 접근으로 연구하면서 자립의 하위영역을 김순곤(2003)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자립, 심리적 자립, 사회적 자립, 경제적 자립, 정보의 자립으로 나누었다. 이외 문정란(2008)은 자립의 구성요소를 신체적 자립, 심리적 자립, 사회적 자립, 경제적 자립, 정보의 자립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임선희(2010)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양호(2009)는 경제적 자립지원을 중심으로 한 새터민 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새터민의 자립 지원을 위한 취

〈표 1〉 여러 선행연구의 자립의 구성요소

저자 (연도)	제목	하위영역 지표					
		경 제	신 체	심 리	사 회	정 회	일 주 거
김정연 외 (2011)	시설 심대 청소년의 자립적도 개발 : 심대 여성 지원시설 입소 및 이용 자를 중심으로	●		●	●	●	●
임선희 (2010)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이양호 (2009)	새터민 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 경제적 자립 지원 정책 중심	●					
이상록 (2007)	중증뇌성마비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	●	●	●	●
김순곤 (2003)	중증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	●	●	●	●
김민정 (2002)	국립재활원 자립생활프로그램 평가		●	●	●		
김희성 (2002)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		●
타니 구치등 (1999)	자립생활은 즐겁고 구체적으로	●	●	●	●		●

업 지원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서술하였다(표 1).

이와 같은 여러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능력을 측정하는 구성요소를 정보, 경제, 사회심리 및 관계, 주거로 설정하여 접근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립의 구성요소를 이와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한 이유는 첫째, 오늘날 다문화 가족의 상당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의 대부분은 정부 지원금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할 때, 선택권과 결정권이 없는 삶의 방식으로 연결되어 개인의 독립성, 주체성을 저해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다문화가족 특히 결혼이민여성들은 대인관계나 인적관계망이 취약하다. 따라서 사회적응능력과 사회관계 능력의 향상을 통한 사회심리적 자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셋째, 오늘날은 정보 격차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정보화 시대로써 결혼이민자의 연령대가 대부분 20~30대에 속하고, 2세대 자녀들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계층간의 격차를 좁혀가는 차원에서 정보화 자립은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넷째, 주거환경은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공간 환경 중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며 개인의 삶의 축이 되고, 가족의 삶을 집결시켜 주는 곳이다. 그

리나 농촌의 다문화 가족들은 상당 수가 시부모 혹은 시형제가 거주하는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며, 2~4명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공간도 제약되어 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다문화가족이 주거생활공간을 쾌적하고 여유있게 유지한다는 것은 삶에 대한 애착 및 의욕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2.1.2. 자립의 특성

일반적으로 의욕 또는 욕구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자립의지와는 달리 자립은 결과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남에게 예측되거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선다는 의미를 지니나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 외에도 해석의 초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Pearce, Brooks와 Quttz(1997)는 자립능력에 초점을 두고, 자립을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 또는 기본적인 복지 욕구 간의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했다. 허태현(2005)은 실직상태에 있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이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취업이나 창업의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자립은 결과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독립적이고 안정된 삶의 의미로 정의되기도 한다. Johnes(1993)은 자립생활에 대해 자립적인 자아와 권리를 가진 자립주체로서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활동까지를 포함한 모든 생활이라고 정의하며 자립은 전적인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정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Brisenden(1989)은 자립생활은 우리 삶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으로서 실천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서 자립적인 사람은 자신의 생활전반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며, 스스로가 모든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은 스스로 필요한 원조와 지원을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제공받음으로써 이뤄지게 되는 것이며, 결국 이로 인해 자립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자립의 구성요소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Hawkins(2002)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더 이상 복지 급여를 받지 않고 노동과 소득 측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중산층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상태, 스스로의 취업 노력에 의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가의 보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Freeman(1997)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기술, 능력 한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는 상태라고 하였다(이형하 & 조문탁, 2004, 재인용). 이자성(2011)은 정보화 자립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초적인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능력을 바탕

으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정보 생활화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정보화 자립을 위해서는 정보기기 및 매체를 다루는 기술을 숙달하는 것, 즉 인터넷 정보검색, 인터넷 쇼핑, 인터넷 활용 공공기관 홈페이지 방문, 인터넷 메일 사용 등의 정보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정연, 하지선과 김인숙(2011)은 사회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활동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능력은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지관계를 맺고 상호 협력하며 살아가는 대인관계능력과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비판과 칭찬을 수용하고, 관계 확장을 통해 자원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인 사회적 관계능력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earce 등(1997), 허태현(2005) 등의 개념에 토대하여 자립을 농업·취업·창업활동 등 사회활동을 통해 정보, 경제, 사회심리 및 관계, 주거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성취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여 접근한다.

2.2. 자립과 자립의지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2.2.1. 자립과 자립의지의 관계

자립의지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독립하여 정당한 지위에 서고자 하는 자기 발견적 의욕 또는 욕구를 의미한다(허태현, 2005). Halvorsen(1998)에 의하면 자립의지는 사회의 여러 제도를 활용하고 생활의 변화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박용순(1997)은 자립의지(의욕)를 결핍한 대다수의 저소득층은 직업훈련과 근로기회를 제공받고도 창의적인 활동과 지속적인 자립생활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해 자립에 실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변규란, 이정은과 윤진아(2007)는 자립의지는 자신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경제적·정서·사회적 빈곤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과 자기선택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자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으면 자립에 성공할 수 없듯이 자립에 있어서 자립의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여러 선행연구(오혜경, 1998; 최종희, 2010)에 의하면 자립의지는 자신감, 자아통제력, 근로의욕과 같은 요인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자신감은 성공적으로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상태,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다(김명숙, 2007; 김미연, 2009). 자신감이 충만할 때, 개인은 열등감이나 무력감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긍정적

인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자립의지로 이어져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 자아통제력은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관리·통제하는 기술로,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의 행동을 제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며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동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다(Kopp, 1982). 자아통제력이 높으면 주어진 상황을 탐색하고 대안을 파생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문제해결능력이 높아진다. 이는 자립의지를 강화시켜 자립에 기여한다(김금열, 2002).

근로의욕은 소득의 부재에 따른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심리적 상태이다(조성호, 2002; 허태현, 2005; 원상숙, 2007; 최종희, 2010). 이것은 목표설정이론(Goal setting theory),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 공정성이론(Equity theory)으로 설명되며(김영미, 2002), 근로에 대한 보상과 공정성에 대한 자각이 강화될 때 개인의 근로 만족도와 근로의욕은 향상되며, 이를 자립의욕에 연결시킬 수 있다. 한편 Hernanz, Malherbet과 Pellizzari(2004), Wong과 Lou(2010) 등의 선행 연구들은 사회수당을 통해 받는 복지혜택 보다 더 낮게 제공되는 취업소득이 일할 능력이 있는 많은 사회수당 수혜자들로 하여금 저가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하게 만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의욕을 장려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립의지를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태도 및 욕구로 정의하면서 이를 구성하는 요인을 자신감, 자아통제력, 근로의욕으로 나누어 접근하고자 한다.

2.2.2. 자립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

자립을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적인 요인에서든, 가족적 요인에서든 자체적으로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일반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이러한 의미에서 Kayser와 Frick(2001), Hernanz et al(2004)은 사회조직에 덜 연결되어있고 삶에 대한 태도가 보다 수동적인 사람은 사회보장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경험적인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처리와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Cohen & Wiles, 1985) 환경적 제약을 완화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바꿀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힘을 주고 의지를 강화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부적인 스트

레스에 대한 적응력이 강화되고 사회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적응력이 손상되어 우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Aneshensel & Stone, 1982). LaRocc, House & French(1980)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그 상황에 밀접하게 관계된 지지 제공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민영주(2006)는 가족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친밀한 관계이므로 가족의 지지는 어떤 사회적 관계보다 큰 영향력을 지닌다(김남욱, 2008, 재인용)고 하였다.

다른 한편 이재은(2009)은 다양한 사회관계망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도움, 우정 등의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사회적 존재로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인식하고, 인정받고 있음을 자각하며 자신감과 자존감을 형성시키는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이재은, 2009) 고 함으로써 자립의지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성을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자립에 사회적 지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3.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한 여러 선행연구들(김남욱, 2008; 이경혜, 2000; 임선희, 2010 등)을 고찰한 결과, 교육수준 등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자신감과 같은 자립의지나 개인적 태도 변인, 가족관계와 같은 사회적지지 변인이 중요한 요소로 밝혀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 및 한국 거주기간·교육수준·연령과 같은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자신감·자아통제력·근로의욕과 같은 자립의지 변인, 배우자 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 변인으로 구분하여 각 변인집단들을 구성하는 개개 변인들이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자립의지 변인, 사회적 지지 변인이 자립에 미치는 상대적인 중요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3.1. 자립의지 변인

김남욱(2008)에 의하면 개인의 가치관, 개인의 역량은 과업수행 여부와 수행정도를 결정하고,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자립에 개인의 태도 및 욕구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임선희(2010)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에는 자신감이 유의미하게 작

용하여 자신감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립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자아통제, 근로의욕과 같은 자립의지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거나 이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규명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2.3.2. 사회적 지지 변인

자립과 사회적지지 수준과의 관계를 분석한 여러 선행연구(김순곤, 2003; 이경혜, 2000)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립수준이 높았다. 임선희(2010) 연구에서 가족관계는 경제적 자립준비도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해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경제적 자립준비도가 높았다. 또한 김수정(2008)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빈곤가정 아동과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명숙(2007)의 연구에서는 모든 유형의 사회적 지지가 근로의욕, 자신감 등 자립의지에 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지지가 자립의지를 매개하면서 자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지지가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만을 분석하였다.

2.3.3.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Wong과 Lou(2010)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중 생산인구층에 속하는 모든 사회보장 수혜자들은 사회보장 수혜시스템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을 보인 반면 노인들은 이것에서 벗어나 자립을 이루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혜(2000)에 의하면 교육정도는 자립생활에 정적으로 작용하며 학력이 높을수록 자립 수준이 높았다. 김남욱(2008)에 의하면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의 농촌 남성과 결혼해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국 등의 결혼이

3) 2011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 에서 부터 2011년 사이에 혼인한 결혼이민여성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순서로 많으며 이들 5개국에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86.8%에 달한다.

민여성과 남편이다. 이들 출신국은 통계청의 자료³⁾를 참고하여 출신국별 결혼이민여성의 상대적 비율이 높은 순서를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다.

조사는 2011년 8월 22일부터 9월 16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계통추출에 의해 선정된 전국 187개 농촌생활지표 조사마을중 전국 8개도 42개 시·군 42개 마을을 재계통추출하여 해당마을과 인근 마을을 중심으로 총 391호 782명이 조사되었는데, 부부가 쌍으로 조사되지 않거나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이외의 출신국가의 자료, 응답이 부실한 자료들을 제외하고 총 363호 726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자료를 이용해서 42개 마을에 대한 농촌생활지표조사 현지 모니터들이 해당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필리핀인 결혼이민여성, 베트남인 결혼이민여성, 캄보디아인 결혼이민여성은 각각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기록하는 식으로 조사하였다.

<표 2>에 제시한 것처럼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여성의 평균 연령은 일본 43.81세, 중국 37.43세, 필리핀 35.12세, 베트남 27.37세, 캄보디아 26.70세이었다. 남편과의 평균 연령차이는 일본이 약 5.2세로써 가장 적은 반면 캄보디아인 및 베트남인의 경우 약 17세로써 가장 컸다. 중국과 필리핀은 약 10세 차이였다. 농촌지역의 중년기 국내결혼 부부의 평균 연령차이가 약 3세이라는 점(양순미·정현숙, 2005; 양순미·유영주, 2002)을 고려해 볼 때 중국과 필리핀 다문화가족의 부부는 비교적 높은 연령 차이를 보이며,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경우 이러한 연령차이가 보다 극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과 필리핀 결혼이민여성의 학력은 전문대학을 중퇴

한 수준으로써 고등학교를 중퇴한 수준인 한국인 남편의 학력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중학교를 졸업한 수준으로써 한국인 남편들의 학력 수준과 유사하거나 낮았다. 이를 농촌지역의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아내와 남편의 평균 학력수준을 비교한 연구에 비추어 볼 때(양순미, 2001)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들은 농촌지역의 일반 중년기 가족의 남편들과 학력수준이 유사한 반면 결혼이민여성들의 학력은 평균 중졸수준인 한국 농촌의 일반 중년기 가족의 아내들의 학력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결혼이민여성의 거주기간은 일본인이 상대적으로 가장 긴 반면 캄보디아인이 가장 짧았다(표 2).

3.2. 척도

3.2.1. 자립 척도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본 Human Care Association의 자립생활지표를 토대로 국립재활원(김민정, 2002)에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 영역으로 구성된 척도, 국립재활원의 척도를 재구성하여 신체적·심리적·사회적·정보화·경제적 자립 영역으로 편성한 이상록(2007)의 척도, 타니 구치야키히로와 타케다야스하루(1999)의 자립의 하위영역 및 개념을 인용하여 총 25문항으로 자립 측정 척도를 구성하였다. 1차적으로 구성된 척도는 Principal Axis Factoring에 의해 oblique rotation을 적용하여 2회 회전한 후 요인 적재량이 .40이상인 항목만 선정하여 최종 4개 영역(정보화·경제·사회심리관계·주거환경) 20문항으로 완성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Likert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각 하위영역별 자립역량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척도의 신뢰도에 있어서 정보화 영역은 Cronbach's a=.88, 경제적 영역은 Cronbach's a=.88, 사회심리관계 영역의 Cronbach's a=.78, 주거환경 영역의 Cronbach's a=.85, 자립역량평가 척도의 총체적인 Cronbach's a=.85로써 비교적 높은 수준의 내적일치도를 나타내었다.

3.2.2. 자립의지 척도

자립의지를 측정하는 척도는 김명숙(2007), 최충희(2010) 등에서 이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총 12문항으로서 자신감 4문항, 자아통제 4문항, 근로의욕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부터 ‘매우 그렇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63쌍)

출신 국가	연령		학력		결혼이민여성 거주기간 M(S.D.)
	결혼 이민여성 M(S.D.)	남편 M(S.D.)	결혼 이민여성 M(S.D.)	남편 M(S.D.)	
중국	37.43(8.34)b	47.87(6.66)a	2.62(0.94)c	2.83(0.96)a	104.84(54.87)b
일본	43.81(7.18)a	49.04(5.88)a	3.41(0.83)b	2.69(1.14)a	164.79(60.52)a
필리핀	35.12(7.43)c	45.18(5.03)b	3.82(0.93)a	2.76(1.15)a	97.23(50.93)b
베트남	27.37(4.36)d	44.56(5.50)b	2.38(0.86)dc	2.87(0.96)a	48.78(25.25)c
캄보디아	26.70(3.40)d	44.50(5.49)b	2.19(0.63)d	2.86(0.80)a	46.64(21.19)c
F값	75.88***	8.65***	43.23***	0.33	69.70***

표 2는 양순미(2013)에서 인용하였으며, 표안의 a, b, c, d는 사후검증으로 Duncan test한 결과를 표기한 것임. 학력의 기준값은 1 초등졸, 2 중등졸, 3 고등 졸, 4 전문대졸, 5 대학졸임 ***p<.001

다(5)까지 5점 Likert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별 자립의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자립의지 하위영역중 결혼이민여성의 자신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7$, 자아통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8$, 근로의욕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2$, 자립의지 총체적인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이었다. 남편의 자신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자아통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0$, 근로의욕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8$, 자립의지 총체적인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2$ 이었다.

3.2.3. 사회적 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 이용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척도는 Zimet 등 (1994)이 개발한 척도를 이상록(2007, 재인용)이 가족의 지지를 측정하는 6개 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으로서 이를 다시 5개 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각 문항은 자신에 대한 배우자(남편 혹은 아내)의 사회적 지지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Likert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결혼이민여성이 인지한 자신에 대한 남편으로 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이었으며, 남편이 인지한 자신에 대한 결혼이민여성으로 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이었다.

3.2.4. 사회인구학적인 척도

연령, 학력 등은 양순미(2001, 2006b)의 척도를 이용하여 연령은 개방형으로 질문하였으며, 학력은 초등학교졸에서 대졸 수준까지 서열형으로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결혼이민여성의 국적이거나 거주기간을 측정하는 척도는 양순미(2008)를 인용하였는데 국적은 명목형으로 작성하였고, 거주기간은 년과 개월을 개방형으로 작성하도록 한 뒤에 분석과정에서 이를 개월로 환산하여 활용하였다.

3.3. 자료의 분석

최종분석에는 363쌍 726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분석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의 자립 수준은 부부가 인지한 자료를 통합하여 가족점

수화한 뒤에 이것을 다시 2로 나누어서 얻어진 2차적인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는 가족구성원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을 통하여 가족변인을 측정하기 보다 다수의 구성원들을 연구에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풍부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다는 주장(유계숙, 1996)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남편과 아내가 인식한 자립수준의 상관⁴⁾이 의미있게 관련되어 있고, <표 4>에서 제시한 것처럼 다문화부부의 전체적인 자립인식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무의한 것으로 나타나 위의 주장에 비추어 자립변인을 가족변인단위로 측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해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자립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인들은 개인의 지각에 초점을 두어 개인적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유계숙, 1996)으로 사료되어 개인단위 점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SA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초통계량(빈도, %, 평균값)분석, paired t-test, ANOVA 분석 및 사후검정으로 Duncan Test,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이 이루어졌다. 이는 위계적 회귀분석이 사회과학분야의 계량연구에서는 내재적 자료(nested data) 또는 위계적 자료(hierarchical data)를 이용함으로써 오차항간의 상관성이나 회귀계수값의 변이를 분석함으로써 분석결과와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유용하다는 김태일(1999)의 주장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출신국과 조사지역을 선정하여 그 공동체 내에서 해당 가구를 비례적으로 할당 표집하는 등 위계적인(hierarchical) 방식으로 표본자료를 구성하였다. 또한 분석기법을 회귀모형으로 구성하였을 때 회귀계수값의 변이를 간과하게 되어 분석결과와 타당성이 상실되는 오류를 막기위해 통제변인의 투입에 따른 변인들의 회귀계수값 변이양상 또는 유의성 소멸 양상과, 회귀모델에 따른 통제변인들의 상대성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4. 연구결과 및 해석

4.1. 농촌 다문화가족이 인식한 자립 수준

4.1.1.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의 일반적인 수준

결혼이민여성들의 출신국별로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 수준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표 3), 총체적 자립수준은 100점에서 평균

4) 363쌍 726명의 자료를 상관분석한 결과 다문화남편이 인지한 자립수준과 결혼이민여성이 인지한 자립수준은 $r=.49$ 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이루었다.

58.0~61.2점으로서 결혼이민자가 베트남출신인 다문화가족이 가장 높았으나 일본인인 다문화가족은 가장 낮았다. 정보화 영역의 자립은 30점에서 평균 13.4~15.5점으로서 필리핀인 다문화가족이 가장 높은 반면 캄보디아인 다문화가족이 가장 낮았다. 경제적 영역의 자립 수준은 25점에서 평균 11.9~13.6점으로서 캄보디아인 다문화가족이 가장 높은 반면 일본인 다문화가족은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백분위로 약 50점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경제적 자립을 백분위 70점 수준으로 밝힌 선행 연구결과(임선희, 2010)와 다소 차이가 있는 양상이다. 한편 사회심리 및 관계 영역의 자립 수준은 35점에서 평균 25.4~26.9점으로서 베트남 다문화가족이 가장 높은 반면 필리핀인 다문화가족이 가장 낮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것은 중국·일본·필리핀 결혼이민여성들의 적응 수준을 비교 분석한 양순미(2006b)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써 대다수가 중국 조선족출신인 본 연구 조사대상의 중국인들이 한국생활에 언어 및 문화적 유사성으로 적응이 유리하여 상대적으로 이의 이질감이 큰 필리핀 보다 사회심리관계적인 자립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주거환경영역의 자립은 10점에서 평균 5.7~6.7점

〈표 3〉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별 다문화가족의 자립 수준

(n=363쌍)

출신국	정보화 영역		경제적 영역		사회심리 및 관계 영역		주거환경 영역	
	M (S.D.)	백분위	M (S.D.)	백분위	M (S.D.)	백분위	M (S.D.)	백분위
중국	14.2ba (4.7)	47.4	12.7bac (3.9)	50.6	26.8a (3.4)	76.6	6.2ba (2.0)	61.7
일본	14.7ba (4.7)	48.9	11.9c (4.4)	47.5	25.6b (3.2)	73.0	5.8b (2.2)	58.4
필리핀	15.5a (4.7)	51.7	12.1bc (3.8)	48.4	25.4b (3.6)	72.5	6.0b (2.2)	59.9
베트남	15.2a (4.8)	50.7	13.4ba (3.4)	53.7	26.9a (2.9)	76.7	5.7b (2.0)	56.9
캄보디아	13.4b (4.4)	44.6	13.6a (3.3)	54.4	26.2ba (4.0)	74.8	6.7a (1.9)	67.4
F값	1.92		2.73*		3.30*		2.18	

표안의 a, b, c, d는 사후검증으로 Duncan test한 결과임. * $p<.05$, *** $p<.001$

〈표 4〉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남편이 인식한 자립의 수준 비교

(n=363쌍)

통계량	결혼이민여성	남편	S.E.	paired-t 값
	M(S.D.)	M(S.D.)		
전체 자립	59.3(10.7)	60.1(11.1)	.58	-1.34

으로서 캄보디아인 다문화가족이 가장 높고 베트남의 경우 가장 낮았다. 그러나 총체적 자립 수준, 정보화 및 주거환경영역에 있어서 출신국가별 다문화가족의 자립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결론적으로 하위영역별 자립 수준은 전반적으로 정보화 영역에서 가장 낮았고 이어서 경제적 영역 순서로 낮은 반면 사회심리 및 관계영역의 자립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는 다문화가족부부 각각이 자신의 가족의 전반적인 자립 능력을 평가한 수준으로서 결혼이민여성과 남편이 인지한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농촌 다문화가족이 인식한 자립의지와 사회적지지의 일반적인 특성

4.2.1. 출신국별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남편이 인식한 자립의지와 사회적 지지의 특성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결혼이민여성들의 자립의지 수준을 분석한 결과 총체적 자립의지는 60점에서 평균 40.8~45.8점으로서 중국인 결혼이민여성에서 가장 높았고, 캄보디아인의 경우에서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은 양상은 자아통제, 근로의욕과 같은 하위영역에서도 유사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런데 자신감 하위영역의 자립의지는 중국이 가장 높은 반면 필리핀이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에 따른 남편들의 자립의지 수준은 총체적 자립의지, 자신감·자아통제·근로의욕 하위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결혼이민여성이 인지한 자신에 대한 남편으로 부터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베트남인 결혼이민여성 집단에서 가장 높은 반면 일본인 집단에서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남편이 인지한 자신에 대한 아내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결혼이민자가 필리핀인 남편집단에서 가장 높은 반면 캄보디아인 남편 집단에서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5).

4.2.2.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남편과 인식한 자립의지와 사회적 지지의 차이

〈표 6〉은 부부가 인식한 자립의지 및 사회적 지지 수준의 차이를 제시한 것으로서, 자립의지는 총체적 그리고 모든 하위영역에서 남편의 자립의지 수준이 결혼이민여성인 아내들 보다 높은 것

<표 5> 출신국별 결혼이민여성 및 남편이 인식한 자립의지와 사회적지지의 일반적인 특성

(n=363쌍)

출신국	자립의지			사회적 지지	
	자신감	자아통제	근로의욕		
	M(S.D.)	M(S.D.)	M(S.D.)		
결혼 이민 여성	중국	15.9(2.6)a	15.0(2.7)a	14.9(3.0)a	18.7(4.1)ba
	일본	14.3(2.5)b	13.6(3.1)b	13.7(2.9)b	16.8(3.9)c
	필리핀	13.8(3.4)b	13.6(3.1)b	13.6(3.2)b	17.8(4.9)bc
	베트남	15.5(2.9)a	14.6(3.1)ba	15.0(2.7)a	19.4(4.0)a
	캄보디아	14.2(2.5)b	13.5(3.3)b	13.1(3.0)b	17.3(4.8)bc
	F값	7.79***	3.66**	5.62***	4.34***
남편	중국	16.0(3.1)a	15.0(2.9)a	14.9(2.8)a	18.2(3.7)ba
	일본	15.9(3.2)a	15.0(3.0)a	15.1(3.0)a	17.8(4.3)ba
	필리핀	15.6(2.5)a	14.9(2.6)a	14.5(2.8)a	19.0(4.5)a
	베트남	15.8(3.0)a	15.1(2.8)a	15.2(3.0)a	17.3(4.2)bc
	캄보디아	15.9(2.7)a	14.9(2.7)a	14.7(2.82)a	16.3(3.3)c
	F값	0.25	0.06	0.83	3.69**

p<.01 *p<.001

<표 6> 결혼이민여성과 남편의 자립의지 및 사회적지지의 차이 (n=363쌍)

변인	결혼이민 여성	남편	S.E.	paired-t 값	
	M(S.D.)	M(S.D.)			
자립의지	자신감	14.9(2.9)	15.8(2.9)	.17	-5.56***
	자아통제	14.2(3.1)	15.0(2.8)	.19	-4.42***
	근로의욕	14.2(3.0)	14.9(2.9)	.19	-3.68***
사회적지지	18.2(4.4)	17.8(4.1)	.24	1.55	

***p<.001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의 자립방안은 자립의지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향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문화가족의 남편과 결혼이민여성이 인식한 사회적지지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6).

4.3.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위계적 효과 분석

4.3.1.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에 작용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위계적인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명목형으로 구성된 출신국가 변인은 중국은 1로 나머지 다른 국가들은 0으로 더미화하였는데 이는 양순미(2006b)의 연구나 본 연구에 제시된 <표 5>의 결과처럼 중국출신의 결혼이민여성들이 적응수준 및 자립의지가 다른 출신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데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회귀분석 가정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한 결과 1.65~1.78이었으며, 각 회귀모델 마다 변인들의 분산확대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s)을 확인한 결과 모두 3.56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투입된 관련 변인들은 전체모델의 44.3%를 설명하고 있었다.

한편 위계적으로 회귀분석한 분석모델 3에 의하면,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인은 결혼이민여성의 연령($\beta=-.31$)이며 이어서 결혼이민여성의 근로의욕($\beta=.25$), 남편의 근로의욕($\beta=.20$), 남편의 교육수준($\beta=.19$), 결혼이민여성의 교육수준($\beta=.12$), 남편이 인지하는 결혼이민여성의 지지수준($\beta=.12$) 순으로 유의하게 작용하였다(표 7). 즉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 수준은 결혼이민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남편이나 결혼이민여성의 근로의욕이 높을수록,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이 인지하는 자신에 대한 결혼이민여성의 지지가 높을수록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생산인구층에 속하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회수당 수혜자들은 사회수당 수혜시스템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을 보이거나 노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Wong과 Lou(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립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결과(김남욱, 2008; 이경혜, 2000), 사회적 지지가 자립정도에 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김수정, 2008; 김순근, 2003; 이경혜, 2000), 근로의욕은 근로활동을 통해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근로동기를 부여한다(김영미, 2002)는 선행연구의 결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3.2. 자립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성

<표 7>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위계적인 회귀분석 모델 1에서 모델 3까지의 전체모델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이 다문화가족의 자립에 작용하는 설명력을 검증한 모델 1은 전체 변량의 15.1%를 설명하면서 $p=.001$ 수준에서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모델 1에 통제했던 자립의지의 하위영역들 즉 남편과 결혼이민여성의 자신감, 자아통제력, 근로의욕 변인을 투입하여 검증한 모델 2의 설명력은 전체 변량의 42%를 설명하였으며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모델 2에 남편과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 지지변인을 새롭게 투입한 모델 3의 전체 설명력은 44.3%이며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종합적으로 모델 2에서는 모델 1에 비해 설명력이 무려 26.9%나 증가한 반면 모델 3은 모델 2에 비해 설명력이 2.3%증가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므로 농촌다문화가족의 자립수준에는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이나 사회적인지지 변인들보다 개인의 심리적이고 의지적 특성을 반영하는 자립의지 변인 즉 자신감, 자아통제력, 근로의욕 변인들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모델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했던 출신국 변인은 자립의지 특성을 새롭게 투입한 모델 2에서 그 유의성이 소멸해 출신국 변인이 자립의지 변인을 간접적으로 매개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다문화가족의 자립에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의 특성보다 자립하고자 하는 개개인의 신념이나 욕구, 태도가 보다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의 보장과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정책대안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권순원,이정우,김매경, 1993)처럼 개인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보다는 자립의지와 같은 태도와 관련한 맞춤형·차별적 정책개발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농촌의 결혼이민여성을 비롯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립지향적(自立指向的)인 정책 방안을 개발하는 선형 작업의 차원에서 이들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위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를 논의하고 결론을 제언하면

첫째, 위계적 회귀분석모델 3에 의하면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인은 결혼이민여성의 연령($\beta=-.31$)으로써 결혼이민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가족의 자립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생산인구층과 노인층 사회수당 수혜자들은 사회수당 수혜시스템의 그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에 차이를 보인다는 Wong과 Lou(2010)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써 자립정책이나 사회보장정책에 연령 변인을 고려한 맞춤형 시스템 개발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의 연령이 낮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복지의존적 정책보다 일 정신과 일 윤리를 장려하는 방안이 주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분석 모델 1에서 모델 3까지 전체적인 모델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인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또는 사회적지지 변인 보다 자신감, 자아통제, 근로의욕과 같은 자립의지 변인이었다. 이 중에서도 남편과 결혼이민여성의 근로의욕은 이들의 자립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근로의욕은 목표설정이론(Goal setting theory),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 공정성이론(Equity theory)을 통해 설명되는데(김영미, 2002), 다문화가족의 근로의욕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표 2>의 출신국별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이나 <표 5>의 출신국별 자립의지 특성에서 보여진 것처럼 상대적으로 근로의욕이 높고 연령이 젊은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목표의 난이도, 명확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나 이를 설정하는 교육과정 및 프로

<표 7>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수준에 자립의지 및 관련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 (n=313명)

변인	모델1 B (β)	모델2 B (β)	모델3 B (β)
출신국(중국1, 나머지 4개국 0)	3.08 (.14)**	1.68 (.08)	1.57 (.07)
결혼이민여성의 연령	-.36(-.34)***	-.29(-.28)***	-.32(-.31)***
남편의 연령	.04 (.02)	.08 (.06)	.13 (.08)
결혼이민여성의 교육수준	1.70 (.19)***	1.20 (.13)**	1.08 (.12)**
남편의 교육수준	1.90 (.21)***	1.67 (.18)***	1.72 (.19)***
결혼이민여성의 한국거주기간	.00 (.02)	-.00(-.03)	.00 (.02)
자립의지			
결혼이민여성의 자신감		.33 (.10)	.11 (.04)
결혼이민여성의 자아통제력		-.04(-.01)	.04 (.01)
결혼이민여성의 근로의욕		.84 (.27)***	.78 (.25)***
남편의 자신감		.03 (.01)	.06 (.02)
남편의 자아통제력		.47(.14)	.30(.09)
남편의 근로의욕		.68 (.21)**	.65 (.20)***
결혼이민여성 인지 남편의 지지			.22 (.10)
남편인지 결혼이민여성의 지지			.27 (.12)*
intercept	58.73***	23.16***	18.56***
F Value	10.24***	19.81***	18.72***
Adj R-Sq(Adj R-Sq 변화량)	.151	.420(.269)	.443(.023)
D-W 계수	1.65	1.76	1.78

* $p<.05$, ** $p<.01$, *** $p<.001$

그램이 우선적으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Hernanz et al, 2004; Wong & Lou, 2010)에서 제시한 것처럼 일과 사회보장 양자에 대한 단순한 선택을 강요하는 정책보다는 이들에게 보다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균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여건을 조성하여 이들의 근로의욕을 근원적으로 동기화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여러 선행연구(Kaysner와 Frick, 2001; Hernanz et al, 2004)에서 사회조직과 덜 연결되어있고 삶에 대한 태도가 보다 수동적인 사람은 사회보장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표 7>에 제시한 회귀분석 모델 3에 의하면, 남편이 인지한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자립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자립을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농촌 다문화가족은 기본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기반을 가졌다고 할 수 있지만 배우자 지지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배우자 지지는 그러한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이들에게 배우자로부터 나오는 사랑, 도움, 우정 등의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사회적 존재로서 어떤 위치에서 있는지 인식하고 인정받고 있음을 자각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형성시키는 좋은 자원이 될 수 있으며, 환경적 제약을 완화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바꿀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힘을 주고 자립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사회관계적 역량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이 배우자인 남편을 배려하고 지지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적 역량을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표 5>와 <표 6>에서 제시한 것처럼, 중국 출신의 결혼이민여성들과 남편이 인식한 자립의지 수준이 일부 유사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출신국가별로 결혼이민여성들이 인식하는 자기 자신의 자립의지는 남편들이 인식한 자립의지 수준 보다 낮았으며, 특히 이를 자신감, 자아통제력, 근로의욕으로 나누어 쌍체비교분석한 결과 이러한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이들이 친정국가의 사회주의화된 문화권에서 생활하면서 형성된 사회가치태도에서 기인한 결과로 사료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결혼이민여성들이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학습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공정하고 경쟁적인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일하고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가치체계의 변화를 유도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대상은 계통추출된 지역에서 선정하였으나 출신국가별로 비례할당하여 표집함으로써 농촌 다문화가족의 출신국가별 구성분포에 따른 대표성을 갖기에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농촌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립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자립의지가 지니는 상대적인 중요성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 정책 및 방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문헌

1. 권순원, 이정우, & 김매경. (1993).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 대책. 한국개발연구원 동향/연구보고서.
2. 김남옥. (2008). 가출청소년의 자립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중장기 청소년 쉼터를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3. 김금열. (2002). 자활근로대상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4. 김명숙. (2007). 사회적지지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5. 김미연. (2009). 그룹홈 청소년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6. 김민정. (2002). 국립재활원 자립생활프로그램 평가. 재활의 삶, 15호, 101-127.
7. 김수정. (2008). 빈곤가정 아동,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아동복지학, 25호, 9-38.
8. 김순곤. (2003). 중증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김정연, 하지선, & 김인숙. (2011). 시설 신탁 청소년의 자립 척도 개발 : 신탁 여성 지원 시설 입소 및 이용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23-53.
10. 김영미. (2002).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참여자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김태열. (1999). 위계적 선형모형기법의 이론과 적용-고교학업 성취도 결정요인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9(1), 203-218.
12. 김희성. (2002).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3. 문정란. (2008). 뇌성마비장애인의 지역사회자원 활용이 자립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4. 박영관, & 강철희. (1999). 저소득층 모자가정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 91-116.
15. 박용순. (1997). 저소득층 자립방안을 위한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2, 91-112.
16. 변규란, 이정은, & 윤진아. (2007). 모자보호시설 가구주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3), 139-166.
17. 보건복지부.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8. 양순미. (2001).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 양순미. (2006a).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적응정책의 모색. *한국자치행정연구*, 5, 111-127.
20. 양순미. (2006b).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중심. *농촌사회*, 16(2), 151-179.
21. 양순미. (2008). 농촌 다문화가족이 농업 및 사회참여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08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시험연구 보고서.
22. 양순미. (2013).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인식 수준과 지원 요구. *농촌지도와 개발*, 20(4), 963-1022.
23. 양순미, & 유영주. (2002). 농촌부부의 배우자에 대한 역할 기대, 역할수행평가, 역할상이성이 결혼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75-91.
24. 양순미, & 정현숙. (2005). 농촌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종단적 비교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27-46.
25. 원상숙. (2007).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위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6. 유계숙. (1996). 가족테이터의 통계적 산출 및 분석방법에 관한 탐색적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1-20.
27. 오혜경. (1998). 장애인 자립생활 실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 39-63.
28. 이경혜. (2000). 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 이상록. (2007). 중증뇌성마비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30. 이자성. (2011). 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상남도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1), 193-216.
31. 이재은. (2009). 사회적 지지가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구주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32. 이양호. (2009). 새터민 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경제적 자립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33. 이형하, & 조문탁. (2004). 한국 자활사업의 자활효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자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0(1), 217-244.
34. 임선희. (2010).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동양대학교 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5. 조성호.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의 자활근로 의욕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구로지역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36. 최종희. (2010). 사회적 지지가 자활대상자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7. 타니구치아키히로·타케다야스하루. (1999). *자립생활은 즐겁고 구체적으로. 나눔의 집*.
38. 허태현. (2005). *자활산업 참여자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39. Aneshensel, S., & Stone, J. D. (1982).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buffering model of social support. *Arch-Gen-Psychiatry*, 39, 1392-1396.
40. Brisenden, S. (1989). *A charter for personal care' in Progress*. 16, Disablement Income Group.
41. Cohen, C.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42. Cohen, S., & Wile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ntin*, 101(3), 393-403.
43. Halvorsen, K. (1998). Symbolic purpose and factual consequences of the concepts of self-reliance and dependency in contemporary discourses on welfare, in: Scandinavian. *Journal of Social Welfare*, 7, 56-64.
44. Hawkins, R. L. (2002). How low-income single mothers leave welfare for self-sufficiency: The role of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Brandeis University.
45. Hernanz, V., Malherbet, F., & Pellizzari, M. (2004) *Take-up of welfare benefits in OECD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17.
46. Kaser, H. & Frick, J. R. (2000). *Take it or leave it-(Non-) Take-up behavior of social assistance in Germany*.

DIW(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Discussion Paper No. 210.

47. Kimenyi, M. S. (1999). Rational choice, culture of poverty, an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welfare dependency. *Southern Economic Journal*, 57(4), 947-960.
48. Kopp, C. B. (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49. Johnes, K. (1993). Asylums and after: A revised history of the mental health service: from the early 18th century to the 1990s. The Athlone Press.
50. LaRocco, J. M., House, J. S., & French, J. R. P. (1980). Social support occupational stress and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02-218.
51. Pearce, D., Brooks, J., & Quttz, J. H. (1997). *The Self-Sufficiency Standard for Pennsylvania- selected family types*. Wider Opportunities for Women, Inc, Women's Association for Women's Alternatives.
52. Wong, C. K., & Lou V. (2010). I wish to be self-reliant ; aspiration for self-reliance, need and life satisfaction, and exit dilemma of welfare recipients in Hong Ko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95(3), 519-534.

Received 15 February 2015; Revised 03 March 2015; Accepted 10 March 2015



Dr. Soon-Mi Yang is a research worker and specialist at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NAAS) i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where she has study the rural families since 1995. Her research interests, since 2005, is concentrated on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Address:(565-851) 166 Nong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Republic of Korea e-mail) ysm@korea.kr, phone)82-63-238-2646